

석굴암·팔만대장경 소개하면 '감탄'

저는 헝가리에서 포교활동중인 장진오입니다. 이곳에는 5년전 한국스님(법명 법진)에 의해 세워진 유럽 최대의 불탑이 있습니다. 높이 36m, 넓이 24m의 탑 중앙에 순수한 한국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럽의 바다라 불리는 유명한 빌러트 호수가 있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은 유럽인과 헝가리 관광객이 한국의 불탑을 구경합니다. 처음 한국을 떠날 때 한국불교를 세계인에게 알리자는 목적을 가졌지만 구경차 들리는 사람들에게 불탑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뿐 지속적인 연결이 안되어 답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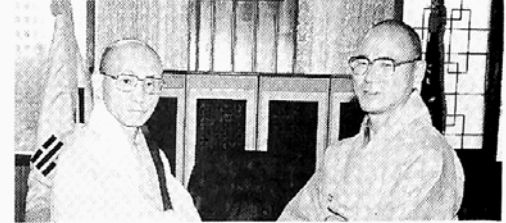
한 느낌입니다. 탑을 구경하는 사람 가운데 20%는 불교를 접한 사람입니다. 먼저 티벳의식으로 참배하는 그들은 108염주를 목에 걸고 불자임을 자랑합니다. 헝가리 언어로 티벳 불교를 소개한 여러종류의 책자들과 엽주, 연꽃과 향과 촛불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뿐 지속적인 연결이 안되어 답답

문에 불자가 아니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달라리 라마를 존경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불교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탑에서 수련대회를 합니다. 잡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화선과 석가모니불 정근 그리고 불구용품을 이용한 불교음악을 연구하는데, 주최자가 일본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의식으로 진행합니다. 독일에서 불교를 배웠으며 법당

에 들어와 좌선을 하거나 중국의 기공법을 불교의 분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베트남 불자들이 참배를 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아는 사람이 없어 오기가 생깁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 부처님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면 한국불교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대해 놀라워합니다. 특히 한국의 참선수행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좌선과 절하는 법을 알려주면 덩치 큰 사람들이 가부좌를 하거나 머리를 조아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자세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헝가리인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방학을 맞은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이틀간 여름불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국식 108배를 합니다. 석가모니불 정근과 예불문을 합쳐 따라하지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마치는 날 수계식 연회에 임하는 아이들에게 헝가리 불교의 장래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반드시 상대국가 언어로 예불문, 반야심경, 부처님 생애, 좌선과 절하는 법이 통일된 교재로 마련돼야 합니다. 집필 부담지면 한국불교의 가능성과 자긍심이 확인됩니다. 출가를 상의해 온 청년을 만났지만 그들이 어떻게 인도할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불기 2541년 8월26일

동구인 참선등 '관심'... 한국불교 알리기 '기회'
티벳·일본 불교 이미 진출... 현지어 교재 절실



월주스님 기초선원에 3천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8월28일 기초선원 운영지원금 3천만원을 기초선원장 진혜스님에게 전달했다. 스님은 또 제3군수사령부 법당건립 지원금 4천만원을 3군수사령부 장교불자회 회장 남우현소령에게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 건립기금 2천만원도 전달했다. 이날 앞서 월주스님은 종단원 소비자보호위(위원장 효강)에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 1천만원을 소비자운동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봉녕사 승가대 대응전 상량식
수원 봉녕사승가대학(학장 묘엄) 대응전 상량식이 8월26일 지홍(조계종 기획실장) 정탁(용주사 주지) 진관(진관사 주지)스님을 비롯 대학관계자 학인 동문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동승가대 대응전은 전통양식의 108평 규모로 98년 2월 준공된다.



자비의집-청구그룹 자매결연
노인무료급식소 자비의집과 청구그룹이 8월27일 대구아동 청소년 상담소 강담에서 자매결연식 및 헌관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청구그룹은 8월27일부터 1년간 매일 3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결연식에는 2백여 노인들 비롯 무공스님(동화사주지) 태일스님(대구사원련 사무총장) 김시화회장(청구그룹) 이상반회장(대한불교)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학 제7기 졸업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은 8월 24일 조계종총무원 1층 법당에서 前포교원장 무진장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을 비롯 2년 전과정을 마친 제7기 8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의 최우승인 포교원장상은 김진관씨가 수상했다. 무진장스님은 이날 축하법문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서 두려움없이 전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동국대 석가여래상 개수봉안

동국대는 8월 25일 교내 명진관앞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승석구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봉안식을 거행했다. 높이 2m 50cm의 석가여래 청동입상인 이 불상은 동국대가 불교종립대학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1964년도 졸업생들이 11월 김영진씨의 작품으로 건립했다. 이번 봉안식은 93년도 중수를 한후 그동안 세월이 지나 조금 부식된 불상을 최근 다시 개금하고 보수하여 이루어졌다.

코미디언·연예인불자회 방송연기자회로 재창립

'코미디언·연예인 불자회'가 10월경 '방송연기자 불자회' (회장 박병호)로 새롭게 재창립된다. '방송연기자 불자회' 재창립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진오씨는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기존의 불자회를 일원화시켜 참불자회로 바꾸는 것이 재창립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가을경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큰스님을 모시고 재창립 법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연기자 불자회'는 단순한 탤런트를 대상으로 하는 불자회가 아닌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등 폭넓은 연기자들의 신행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방송연기자 불자회'는 박병호씨를 회장으로 전임주 서우림 선우영녀 연구진제 등 10여명의 불심깊은 불자연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충북 첫 봉사단체 지장회 발족

충북지역 최초의 불교자원봉사단체인 지장회(회장 여현정법사)가 9월 3일 청원군 문의면 지장정사에서 발족된다. 지장정사 여신도들로 구성된 5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소적새마을 원장 보각스님과 지역사언연합회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봉사회는 간병인 및 호스피스 교육(매주 수·목·금 오후 2~4시) 개강식도 함께 열고 1달간의 교육에 들어간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충북지부(지부장 여연정)의 지원으로 수료증과 봉사단 단증도 수여해 전문적인 봉사단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호스피스교육은 해도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인성교육은 일초(동학사 前장주)·무기(반야정사 주지)스님이, 염습법강의는 김정자원장(자광원)이 각각 맡는다. 앞으로 봉사회는 이같은 지속적인 간병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여현정회장은 "노년 불자들이 흠어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 안타까워 봉사단체를 만들게 됐다"면서 "간병인 교육등에 내실을 기해 어느 단체보다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봉사인력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431)54-2258

우리 모임에선

- 피안복지회 전용회관 열어**
96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자발적인 활동을 벌여 온 피안사회복지회(회장 송영철)가 8월 31일 자원봉사 전용 복지회관을 개관했다. 이날 복지회는 8월 18일부터 실시해 온 피안사회복지대학 제1기 수강생 50명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거듭났다. (032)881-8226
- 대불청 북동기바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부(지부장 김장근)는 9월 7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청 청소년수련관에서 엄길청교수를 초청,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경제강연회와 함께 도일스님의 찬불가공연, 관오사청년회(회장 이한숙)의 국악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장에는 북한동포돕기 식복바자회도 열린다. (053)764-5776
- 부산불교연구 참선·명상교실**
부산 불교문화연구회(회장 임한석)는 9월 5일부터 3개월 과정(매주 금 오후 7시30분~9시)으로 명상·참선체조교실을 개설한다. 강사는 거해스님과 임한석법사.
- 사. 생활학학교도 연다. 회회는 지난 7월 27일 창립된 재가불자 신행모임. (051)441-7700**
- 무학여고 btn 홍보전**
무학여고 불교학생회인 '모디의 울림'(회장 박진희, 지도법사 법경스님)은 9월 5, 6일 학교축제를 맞아 불교텔레비전을 알리는 기획홍보전을 연다. 학생들은 주요 출연진을 비롯 제작과정과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한편 전시기간중 불교TV의 대표프로그램을 VTR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중에 갑과연등을 제작판매, 각종 불사금도 마련할 계획.
- 대구산악회 지리산 산행**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9월 21일 지리산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당일 오전 7시 동아쇼핑, 7시 15분 광장교에서 출발. (053)426-7551
- 제주불교총련 팔관대제**
제주불교총연합회(회장 종원스님·관음사 주지)는 28일 제주시 탐동광장에서 '전통문화 계승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팔관대제'를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봉행

우리 생애 찾아온 최고의 기쁨
이 시대의 위대한 컨설턴트 스승 Sama Ching Hai의 자족같은 강연 모습

즉각 깨닫는 열쇠

현대인을 위한 최상의 필독서
어려운 문자공부를 피하고 간단명료한 구어체로 이루어진 Sama Ching Hai의 강연은 美·약·대·화·인·사·의·유·형·등·세·계·곳·곳·에서 같은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세상 너머의 신비..." 등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내용을 통해 독자들도 어느새 "열쇠"를 얻어, 즉각적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것입니다.

●전국의 유명서점이나 아래의 연락처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02)577-2158 ·부산: (051)634-0065 ·대전: (042)625-4801
·전주: (065)270-3237 ·인천: (032)579-5351 ·대구: (053)766-3189
·제주: (064)24-5781 ·안동: (0571)821-3043 ·광주: (062)232-9613
·창원: (0573)73-1399 ·예산: (0418)35-2898 ·포항: (0562)42-2562

SM출판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유역빌딩 2층
TEL: 02576-1464, FAX: 02576-146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니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땀샘이 검고 딱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같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감상신으로 통발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태아가 임파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결핵(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